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우리농장



최 윤 진 기자
농수축산신문

무항생제 사육은 철저한 기록관리가 최우선
생산성 지수 일반 사육보다
7~10% 오히려 더 높아져

1995년 육계 사육을 시작해 약 15년의 사육경력을 갖고 있는 최현규 대표(우리농장, 경기 가평). 그는 2007년 8월부터 무항생제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겸손해 하지만 그는 마니커 무항생제 육계 사육농가 중 우수한 사육 성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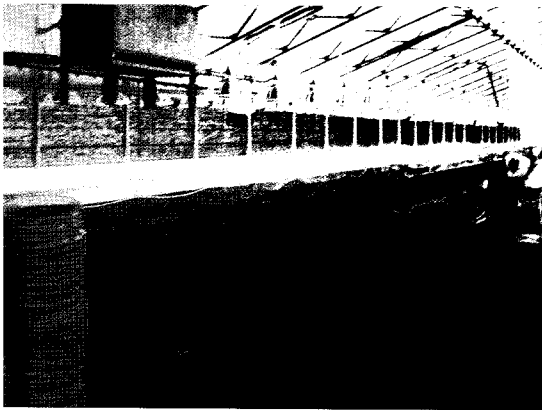
특히 무항생제 사육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최 대표는 마니커의 무항생제 육계, 마미안을 키우면서 자부심도 크다.

조심스럽지만 “무항생제 육계 사육을 하기로 선택을 잘했다”고 자평하는 최현규 대표의 우리 농장을 들여다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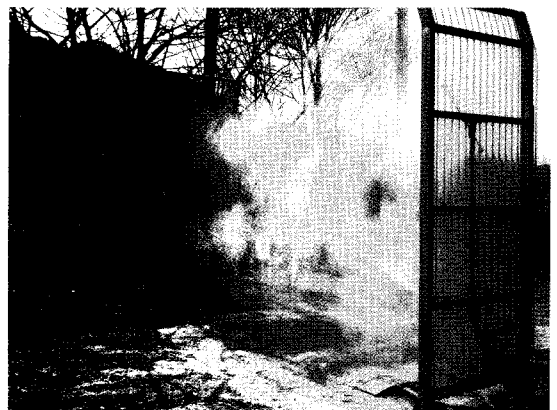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우리농장



계사 내부



출입차량을 위한 소독

종계전문가, 육계사육전문가 되다

최현규 대표가 육계사육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1993년 한 육계 계열업체에서 종계 관련 일을 담당하던 그는 퇴직 후 육계 계약사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경기 가평에 농장 부지를 마련했다.

육계 사육에 관한 경험이 없던 만큼 농장을 한다는 말에 가족들의 반대 역시 적지 않았다.

당시에 대해 최 대표는 “자금이 부족했고 처음엔 종계와 다른 육계만의 특성을 잘 몰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말 그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더니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 만큼의 결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엔 3만수로 시작, 계사 보강 이후 11만 수까지 사육을 했었지만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평균 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1년에 5회전을 하고 있으니 약 40만수 가량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육계 사육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다”며 “밀사를 하면 로스(loss)가 많은 만큼 많이 키우는 것보다 일반 육계나 무항생제나 닭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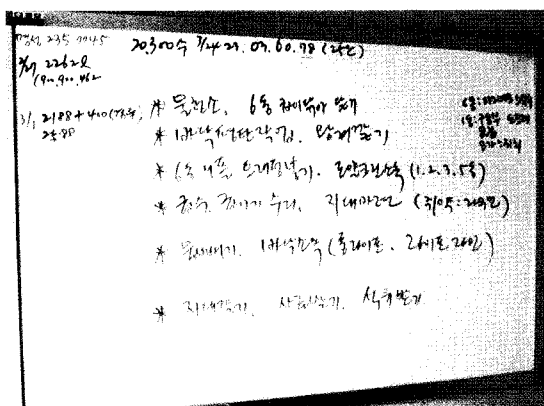
마미안으로 소득도 업그레이드

일반 육계사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자 마니커에서는 무항생제 육계 사육을 권유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우리농장



최현규(우)·한미자 부부



계사 내부에 적힌 기록

고민 끝에 최 대표는 축산을 전공한 만큼 남들과 뭔가 달라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또 내 가족이 먹을 닭고기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생산해보자는 생각으로 마니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제껏 사용했던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니커와 자신, 그리고 육계사육에서 더 없이 좋은 동반자가 된 부인을 믿고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그는 “처음 무항생제 육계 사육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때는 280~290까지 가던 생산지수가 260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육계사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던 만큼 무항생제 사육에 대한 적응도

빨랐다.

부인 한미자 씨는 “처음 무항생제 사육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을 때는 조금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300 이상의 생산지수를 보여 12번 연속으로 300 이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결은 성실과 근면

일부 무항생제 육계 사육 농가의 경우 일반 육계와는 사육방식이 또 달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농장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항생제 육계를 사육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7~10% 더 높아져 소득도 그 만큼 늘어난 것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우리농장

〈표〉 우리농장의 일반/친환경 사육 성적 비교

사육기간	사육횟수	평균중량	평균일령	사료요구율	육성률	생산자수	사육구분
2005년 6월~	11	1.513	31.11	31.11	97.41	293	일반
2007년 8월~	11	1.553	30.73	30.73	97.67	306	친환경

이다.

그 비결을 묻자 최현규, 한미자 씨 부부는 “그저 성실과 근면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며 “다만 육계를 사육하는 것은 생명을 키우는 일인 만큼 순간의 실수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농장은 병아리가 입식되면서부터 철저한 기록관리를 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최현규 대표는 “각 계열업체마다 농가에게 사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농가가 성실하게 기록해야 내 농장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동별 계사에 대해 초기에 도태되는 병아리마릿수, 사료요구율 등 세부적인 성적 등을 기록해두고 있다”며 “전부 기억할 수 없는 만큼 기록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농장방역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병아리가 입식되면 출하될 때까지 부부가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료차량 소독, 운전기사도 농장전용 장화로 갈아

신기 전까지는 농장에 발을 디딜 수 없다.

또 부부가 역할을 분담해 부인 한미자 씨는 환기 등 세밀한 관심을 요하는 일을 맡고, 최현규 대표는 전체적인 계사 환경을 돌본다.

이때 부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닭이 환경의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인 한미자씨는 “더우면 뒀을 갑자기 세계 틀거나 하지 않는다”며 “환기량을 늘릴 때 닭이 변화를 느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전했다.

지금도 최현규 대표 부부는 병아리, 닭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문에 이들은 “일부에서 ‘농사나 짓겠다’는 말을 할 때면 절대 말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 축산, 특히 무항생제 육계사육은 어떤 의미일까.

최 대표 부부는 “힘든 일이지만 노력한 만큼 보람도 큰 것이 바로 축산업”이라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축산을 하는 농가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K>